대승불교의 '대승'이란 무엇일까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불교 용어 가운데 '대승(大乘)'이란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범어 mahayana를 의역한 이 말은 대승불교가 일어나고부터 널리 퍼진 말이지만 초기불교에서도 대승이란 표현이 쓰인 경우가 있다. 〈장아함경〉, 〈잡아함경〉 그리고 〈본생경〉 등에도 대승이라는 용어가 나온다. 그러나 초기불교에서 쓰인 대승이라는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위대하다는 뜻에서 쓰인 존칭의 뜻을 가진 말로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대승'과는 그 뜻이 다르다. 따라서 대승은 대승불교가 시작되면서 보편적으로 널리 쓰이게 된 말이다.

물론 대승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살'과 '육바라밀'이라는 말이 〈증일아함경〉 등에 일부 등장하고 있지만 학자들은 이러한 표현이 후대에 와서 증보된 내용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승은 기존의 부파불교의 교설과는 다른 차원에서 설해진 것으로 부파불교의 한계를 벗어나 고차원적인 교법임을 새롭게 천명하기 위해 내세운 말로 우등(優等)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대승불교가 일어나고부터 대승 이전의 것을 소승(小乘)이라 하여 일반적으로 대승과 소승을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여 왔다. 승(乘)은 수레나 배 등의 탈 것을 말하는 것이니, 대승은 많은 사람을 태워 준다는 뜻인 반면 소승은 한 두 사람의 적은 인원을 태워 준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크고 작은 차이를 두고 대·소승을 구분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대승이 일어난 시기는 마명과 용수의 생존 시기를 전후한 1~2세기경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다. 대승의 교법상 특징은 '법공사상(法空思想)'을 천명한 것이며, 또한 이타주의 수행관을 설한 '보살도정신(菩薩道精神)', 그리고 수많은 불·보살이 등장하는 '다불신앙(多佛信仰)'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경전에 따라 대승의 설명은 다소 차이가 있다. 〈법화경〉 '비유품'에서는 대승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부처님 법을 듣고 믿으며, 부지런히 정진하여 일체지(一切智)와 자연지(自然智)와 스승 없이 스스로 깨닫는 지혜(無師智)와 여래지견(如來知見)과 두려움 없음(無畏)을 구하고 한량없는 중생을 가엾이 여기어 안락을 누리게 하며, 천신과 인간들을 이롭게 하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면 이를 대승이라 이름 한다."

또 〈금강경〉 '대승정종분'에서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기신론〉의 대승은 근원적 설명
"중생 마음이 法이고 대승" 강조

"모든 보살 마하살들은 다음과 같이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알에서 깨어난 것', '태에서 태어난 것', '습기에서 생겨난 것', '변화하여 생겨난 것', '형상이 있는 것', '형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 '생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의 일체 아홉 종류의 중생에 대해 내가 모두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게 해 주리라 하여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어도 실제로는 완전한 열반에 든 중생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보살이 자아에 대한 고집, 인간에 대한 고집, 중생에 대한 고집, 수명에 대한 고집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이상은 〈금강경〉에서 밝힌 대승의 올바른 종취(宗趣)이다. 이 대목을 〈금강경찬요〉를 지은 당나라 때 규봉 스님은 네 가지 마음으로 풀이했다. 일체 중생 모두에 대하여 제도하고자 하는 원력을 가진 마음을 '광대심(廣大心)'이라 하였고,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는 것을 '제일심(第一心)', 중생을 제도하여도 제도했다는 생각이 없이 그대로인 마음을 '항심(恒心)', 일체 관념의 고집이 없어서 뒤바뀌지 않은 마음을 '부전도심(不顚倒心)'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네 가지 마음이 갖춰진 상태가 대승이라는 것이다. 이상의 두 경의 설명은 대승을 이타원력의 보살도에 입각해서 설명한 말이다.

〈기신론〉의 대승은 보다 근원적인 설명이다. 중생의 마음 자체가 바로 대승이라고 천명하였다. 중생의 마음이 법이고 대승이란 점을 특별히 부각시켜 놓은 것이다. 마음이 만법의 근본이라는 불교의 일반적인 대의를 '마음은 본래 대승이다'라고 바꾸어 말한 것이다.

나는 무엇으로부터 구제돼야 하나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㊳보시 인색함에 대해

施 品第八(시간품제팔)

不念恩人無有悲心。若無悲心不能行施。若不施者不能濟渡眾生生死。無悲心者無復親友。有悲心者能有親友。計我者以愛為體。救濟者以悲為體。心有重愛無有知者。有重悲心者亦無能知。若不行施覆蔽悲心。如以ø石乃知β為。若見苦厄者能行大施則知有悲心。 α多者正使所親從乞則成怨憎。悲心多者假使怨家亦如親友。 α多者雖施泥土重於金玉。悲心多者雖施金玉輕於草木。 α多者喪失財寶心大憂惱。悲心多者雖有財寶無施處時心懷悲苦。復過於彼。(불념은인무유비심。약무비심불능행시。약불시자불능제도중생생사。무비심자무부친우。유비심자능유친우。계아자이애위체。구제자이비위체。심유중애무유지자。유중비심자역무능지。약불행시복폐비심。여이화석내지진위。약견고액자능행대시즉지유비심。간심다자정사소친종걸성원증。비심다자가사원가역여친우。간심다자수시니토중어금옥。비심다자수시금옥경어초목。간심다자상실재보심대우뇌。비심다자수유재보무시처시심회비고。부과어피。)

번역

보시의 인색함에 대한 품 제 8

남의 자비심 없는 것은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자비심이 없으면 능히 보시를 행할 수 없으며, 만약 보시하지 않으면 능히 중생을 생사에서 건지지 못합니다. 자비심이 없으면 친한 이가 없고, 자비심이 있으면 능히 친한 이가 있게 됩니다. 나를 살피는 이는 사랑으로써 근본바탕을 삼고, 구제하는 이는 자비로써 근본바탕을 삼아야 합니다. 마음에 거듭된 사랑이 있어도 아는 이가 없고, 거듭 자비심이 있어도 능히 알 수 없나니, 만약 보시를 행하지 않으면 자비심이 사라지나니, 돌에 새긴 글로써 진위를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고통과 재앙 당한 이를 보고 능히 큰 보시를 행한다면 곧 자비심이 있는 줄 알게 되나니, 인색한 마음이 많은 이는 친절하게 구걸하는 이에게로 나아갈지라도 원망과 미움만 이룰 뿐입니다. 자비심이 많은 이는 가령 원수일지라도 친한 벗처럼 여깁니다. 인색한 마음이 많은 이는 비록 진흙을 주면서도 금이나 옥처럼 중히 여기지만, 자비심이 많은 이는 비록 금과 옥을 베풀어도 초목처럼 가벼이 여깁니다. 인색한 마음이 많은 이는 재물과 보배가 없어지는 것에 마음으로 크게 근심하고 괴로워하지만, 자비심이 많은 이는 비록 재물과 보배가 있어도 보시할 곳과 때가 없어 마음속으로 슬퍼하며 괴로워하되 다시 그것보다 더합니다.

해설

마라에게는 세 명의 딸이 있었다. 한명은 '욕망'이라는 이름이었고, 또 한명은 '부드러움'이라는 이름이었으며, 나머지 한명은 '성욕'이라는 이름이었다. 6년의 고행을 뒤로하고 보리수 아래 앉은 싯다르타 앞에 그들은 어여쁜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 땅에 사는 인간치고 천상의 어여쁨을 이길 자 그 누구랴.

남들보다 많이 갖고 싶지 않은 이 어디 있으며, 남들보다 부드러운 옷과 부드러운 음식에 탐닉하지 않을 이 누가 있을까. 어느 누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인 성욕을 이길 수 있을까. 이 세 가지는 어쩌면 뿌리칠 수 없는 치명적 유혹이다.

진흙이나 돌을 세상에 귀한 것으로 여기는 이와, 금이나 보석을 진흙이나 돌처럼 여기는 이는 어디에 속하는가. 과연 누가 스스로를 위해 울어야 할 것인가. 나는 무엇으로부터 구제 되어야 한단 말인가. 거기에 제바라보살은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바람처럼 머묾 없이

비워라! 버려라! 놓아라! 일생을 오롯이 수행해온 노스님들이 즐겨 쓰는 말이다. 그런데 정작 말씀의 주인공인 노스님들께서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주지에 선원장까지 겸직하고 있다. 구차스레 따지자면 주지는 행정의 사판승(事判僧)이요 선원장은 수행의 이판승(理判僧)이다. 그런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주지와 선원장을 겸직한지 사반세기가 넘어도 끄떡없이 장기집권(?)을 누리는 경우가 엄존한다. 죄송스런 표현이지만 그분들이 주지로 임명되고 선원장을 맡은 것은 그분들의 젊은 시절이었다. 그런데도 칠십을 넘겨 팔순을 바라다보는 노안(老顔)에는 저승꽃이라는 검버섯이 늘고 있는데도 후배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미덕(美德)은 찾기 어렵다.

몸에 밴 겸손과 자비에는 마땅히 실천이 따라야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머무는 모습보다 물러나는 모습이 더욱 개운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세간(世間)이던 출세간(出世間)이던 집착이 모든 병을 키우는 원인이 된다. 비우고 버리며 놓는 법문이 구두선(口頭禪)이 되어서는 안 될 터이다.

나(我)아니면 안 된다는 우려는 아집(我執)에 뿌리를 내린 자기 방어적 치졸한 고집일 뿐이다. 다수 대중의 뜻으로 구실을 삼거나 핑계를 일삼는다면 더욱 당당하지도 떳떳하지도 못한 일이다. 쉴 때는 쉬고 물러날 때는 물러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자 수행자의 으뜸 덕목일터.

들숨과 날숨이 이어지지 않는 순간까지 현직을 유지하며 자유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그는 진정한 의미의 수행자, 해탈자의 자유인은 아닐 터이다. 행여, 노파심에서 한마디 덧 붙힌다면 소위 수행승이라는 분들이 노후대비라며 비상금을 챙겨 쌓아둔다면 그들은 속물근성 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업덩이 중생일게 뻔한 일이다. 노후 대책은 마땅히 수행력이 근본이 되어야한다. 소유욕에서 자유롭도록 부단히 노력 정진하며 개운한 삶을 연습해 실천해야한다. 머쓱한 일이지만 인도와 중국, 티베트 등에서 15년을 머문 후 한국에 온 후 13년이 흘러가고 있지만 나의 유일한 거래처 우체국 통장엔 남아있는 돈이 백만원 밑에서 맴돌고 있다.

사자암 주지로 12년 머물고 있어 떠날 날을 당길 생각이지만 12년 동안 권선문 한 번 돌린 적 없고 5년이 넘도록 공양주 없는 생활을 즐기고 있다.

49재 비용은 쌀 한 말이었고 대학입시 합격기도는 12년 동안 한 차례도 없었다. 생일불공 등은 스스로 하게했고 신도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일체 주지 않았다.

시장과 국회의원을 전화로 불러 사자암에서 함께 식사하거나 차(茶)를 마시며 거뜬하게 25억 원 상당을 사자암 공사에 사용했다. 지역 기관장들에겐 엄격한 스승이요 이유 있는 회초리로 자리매김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나의 생활을 오픈하고 살려한다.

숨기거나 드러낼 것 없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당당하게 개운하게 떳떳하게 챙기거나 쌓아두는 일 없이 자유인으로 살려한다.

'비워라! 버려라! 놓아라!'는 이제 구호로만 그칠게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 명분은 그럴듯하게 앞세워 놓고 실리(實利)를 슬그머니 챙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터이다.

'비움·버림·놓음'이 구호로 끝나서야
소유에서 자유로운 수행자가 그립다

중국의 백장선사처럼 하루 일 하지 않으면 하루 밥을 먹지 않는 정신으로 게으름을 병으로 알며 실천하는 삶을 이어 나가야 할 터이다. 천만 원이 넘는 천연 실크로 만든 장삼과 가사를 몸에 두른 채 법상(法床)에 오르는 스님들의 모습에서 한국불교의 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스님은 스님다워야 스님이다. 신앙을 흥정대상으로 여겨 49재 비용 등을 가중시키거나 신도들을 먹이사슬의 법칙으로 받아들여 매달 경제 부담을 안기는 작태는 마땅히 사라져야 할 악습이다. 누구를 방장과 조실로 모실 것이냐를 경쟁으로 선거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나는 안 할래'의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가 자리잡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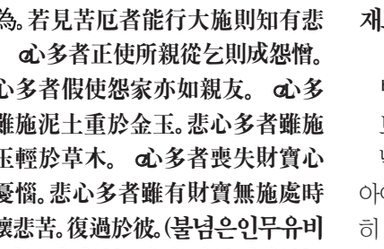
또한 방장과 조실로 계신 어른 스님께서 어느 날 문득 방장과 조실에서 물러나 자연인으로 있는 듯이 없는 듯이 자유인으로 사시는 모습을 꿈꾸고 있다. 바람처럼 머묾 없이 소유욕에서 자유로운 텅 빈 충만의 수행자가 그리워지는 오늘이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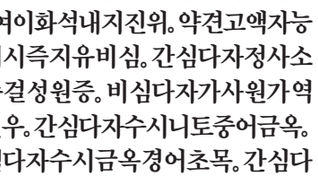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설치가격 : 2,25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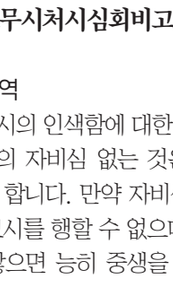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大出力 믹싱앰프

● 법당앰프 설치비용
A형 : 전체 설치비 1,28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CD기, 마이크 2개
B형 : 전체 설치비 1,60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마이크 1개
C형 : 전체 설치비 1,85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구즈넥, 마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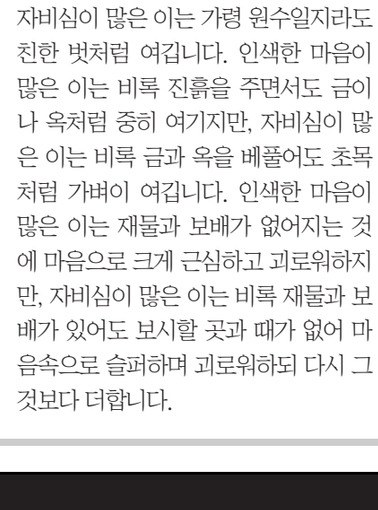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가격 : 245,000원 (발송비 포함)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잘하는 명상은 나의 운명을 바꾸어 줍니다

병이나, 괴로움, 번민 등은 모두 자연법칙을 위배하는데서 일어납니다.
명상을 통하여 모든 자연법칙들의 근원인 순수의식을 확립하면
마음과 몸은 자동적으로 단단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에너지의 흐름이 원활하여 생리계통이 바뀌게 되며, 그후 문제 없고
완전한 건강과 행복을 누리며, 빠르게 발전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 첫째주 (토요일) : 나를 귀하게 하는 명상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 둘째주 (토요일) : 자기 능력을 일깨우는 창조명상〈취업준비 직장인 및 상업인, 사업인 등〉
◆ 셋째주 (토요일) : 사랑을 얻는 행복명상 〈결혼, 이혼, 재혼을 앞둔 이들을 위하여〉
◆ 넷째주 (토요일) : 귀한 자녀를 얻는 태교명상
〈뇌세포의 70%는 엄마의 뱃속에서 만들어 지며, 스트레스는 태아의 뇌 크기를 줄인다〉

◆ 문 의 : 작은 마음선원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로 240번길 32
◆ 전 화 : 010-8673-7558 / 010-5658-2657 / 031-335-2568
◆ 매주 토요일 : 오전 11시 ~ 오후 5시

삶에 대하여 ...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자신을 키우고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 보세요.